

# 메르스에 멈춘 '사랑의 밥차'...한숨 커진 소외계층

## 감염 우려 속 광주·전남 곳곳 무료급식 중단 어르신들 "끼니 해결할 곳 사라져 어떡하나"

지난 11일 오전 11시30분 광주시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앞 우산근린공원은 평소와 달리 매우 한산했다. 끼니를 해결하려고 우산근린공원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어르신들도 눈에 띄었다.

정자 한 칸에서 장기를 두던 김모(72·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당분간 끼니를 해결할 곳이 사라졌다. 밥그릇도 빼앗아갈 정도로 메르스가 무섭긴 무서운 놈"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평소 같은엔 버스 차량 앞에 100m 이상

길게 줄지어 기다리는 무료급식 이용자들이 북새통을 이뤘지만 이날은 어르신 10여 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광주시 북구자원봉사센터가 지난 11일부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확산을 우려, '사랑의 밥차'를 중단한 때문. 북구자원봉사센터는 매주 목요일 우산근린공원에서 65세 이상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점심)을 운영해왔다.

최근 광주·전남지역 상당수 지자체가

메르스 감염 확산을 우려해 무료급식을 잠정 중단되면서 광주·전남 소외계층들이 '생활고'와 '메르스 공포'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광주시 북구와 여수·순천·광양·담양·구례·고흥·보성·화순·해남·영광 등 광주(5개)·전남(22개) 27개 지자체 중 16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이 무기한 중단됐다.

이는 메르스 감염 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각 지자체는 다음달 1일부터 무료급식 운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주시노인복지관은 지난 10일 청산공원과 화동농협 주변에서 어르신 3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이동급식 대신 빵·우유를 제공했다. 여주시노인복지관은 오는 19일까지 이동급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동여수복지관도 지난 10일부터 빵·우유를 나눠주고 오는 19일까지 무료급식을 잠정 중단한다.

목포시는 매주 한 차례씩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주차장에서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무료이동급식을 운영해왔으나 지난 9일부터 무료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점심 도시락 배달 등 대책을 검토 중이지만 대상이 불명확하고 수가 많아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메르스가 어렵게 끼니를 이어가는 소외계층

의 밥그릇까지 빼앗아 가고 있는 셈이다.

현재 광주·전남 각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시설 이용자 수는 1만 명이 상이다. 한 끼당 가격이 3000원~4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한 분이 아쉬운 소외계층 입장에선 다소 부담되는 가격이다.

이들은 문을 여는 몇 안 되는 급식소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곳을 주로 이용해온 어르신들의 눈치를 살피며 먹는 '눈치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22곳 중 15곳이 중단됐으며 나머지 7곳 중 이용자 수가 적은 곳은 도시락 또는 밑반찬으로 대체해 나눠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영광 범군민대책위 한빛원전 온배수 생태계 영향 조사

영광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15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는 오는 2016~2017년까지 2년간 총 12억원을 들여 영광지역 해양생태계 전반을 조사한다. 비용은 대책위와 전남도, 영광군 등이 부담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이를 통해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영향 범위(온도 확산 범위 등)와 그 내용(어족 변화 등)을 파악하고, 온배수저감시설인 방류제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하기로 했다.

대책위 광역해양조사에 나서는 이유는 원전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과거 조사 자료에 대해 어민들의 신뢰가 낮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2001년부터 4년간 한수원 주도로 이뤄진 광역해양조사는 이미 10년 이상 지나 어민들을 중심으로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피해 보상 요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방류제가 영광지역 해양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이종훈기자 jylee@

## 화순군, 정부 유권해석만 믿었다가... 광주지법 "취득세 등 1억여원 결핵협회에 돌려줘라"

화순군이 안전행정부 유권해석을 받고 대한결핵협회에 부과했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1억3400만원 상당을 돌려주게 됐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강희)는 (사)대한결핵협회가 "화순군 화순읍 부지에 취득한 부동산은 면제 대상인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화순군수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한결핵협회는 지난 2011년 화순군 화순읍 부지에 건물을 세우고 녹십자에게 무상 사용토록 하면서 결핵예방접종백신(BCG 백신)을 위탁해 생산해왔다. 당시 화순군은 결핵협회 소유 건물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임을 근거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면제했다.

화순군은 그러나 지난해 11월 '결핵협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당시 안전행정부 유권해석이 내려지면서 해당 건물에 취득세 등 1억3400만원 상당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해 결핵협회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결핵협회가 결핵예방접종백신 생산과 연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건물을 'BCG 백신의 생산'이라는 본래 업무에 사용한 점, 제3자인 녹십자에게 그같은 용도로 제공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 판단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시내버스 손세정제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14일 광주시가 광주지법 버스에 손세정제를 비치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총경 꿈 이뤘는데... 안타까운 교통사고

무안서 가드레일 들이받은 후 뒤따르던 화물차에 치여 숨겨

15일 새벽 4시 무안군 일로읍 무영대교에서 무안방향으로 400m 떨어진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박모(51) 총경이 몰던 SM5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뒤따르던 박모(41)씨의 1t 화물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박 총경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 박씨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현장에서 차량이 진행방향 측면으로 빠르게 미끄러질 때 생기는 SM5 승용차의 요마크(Yaw mark)가 20m 가량 찍혀 있었다.

경찰은 박 총경이 이날 가족이 있는 경향 김해에서 출근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와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정확한 사고원인이 나오는데로 박 총경의 공무상 재해 보상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홍복학원 산하 여고교장 직위상실 통보 적법"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의 홍복학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로 홍복학원측에 산하 여고 교장의 '학교장 직위 상실'을 통보한 것과 관련,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광주시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강희)는 홍복학원이 광주시교육청의 '학원 산하 여고교장 직위 상실 통보' 처분에 불복, 제기했던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학교법인 뿐 아니라 다른 법인에 소속된 학교장에 임명되는 것도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를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학교장에 임명하는 것을 제한, 학

교 경영의 적법성과 건정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한편, 교육부는 2013년 6월 27일 교비회계 자금회영 및 불법 사용, 이사회 운영 부당, 전일교원 허위 임용 등 법인 내 여러 부당행위와 관련해 산하 여고 교장 2명을 포함한 홍복학원 임원 12명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고 광주시교육청은 이듬해 9월 16일 이같은 사립학교법 위반을 내세워 홍복학원 산하 여고 교장에게 '학교장 직위 상실'을 통보한 바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꽃이 예뻐서..." 화분 도둑 딸기

○... "꽃이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남의 가게 앞에 놓인 화분을 몰래 가져간 60대 택시운전기사가 경찰서행.

○...15일 광주광안경찰청에 따르면 배모(67)씨는 지난 10일 새벽 5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한 문구점 앞에 놓인 이모(여·51)씨의 화분을 자신의 택시에 몰래 싣고 가는 등 최근까지 이씨의 상가 주변에서 네 차례에 걸쳐 17만 원 상당의 화분을 훔친 혐의.

○...경찰은 화분이 자주 없어진다던 이씨 등의 신고를 받고 범행 장소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화면 분석한 끝에 배씨를 검거했는데, 경찰에서 "나이를 먹다 보니, 화분에 핀 꽃도 예뻐 보여 순간 마음이 놓였다"고 때늦은 후회.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장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 (초회 공제로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